

內侍 金良輔 扈聖功臣錄券

沈 暻 俊*

〈목 차〉

緒 言

I. 金良輔에게 下賜된 扈聖功臣錄券

II. 錄券의 利缺과 그 復元

III. 錄券의 分析

1. 功勳중에서의 金良輔의 身分과 그 地位

2. 金良輔의 壬亂時의 功勳

3. 金良輔에 대한 差別待遇

IV. 宣武·淸難功臣錄券과의 比較

結 言(錄券의 資料的 價値)

ABSTRACT

緒 言

壬辰倭亂이 勃發하자 宗社가 顛覆되어 宣祖가 都城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으며 百姓들도 莫甚한 被害를 당하였다. 다행히 亂離가 收拾된 후, 그 功을 致賀하는 行事의 하나로서 扈聖功臣·宣武功臣·淸難功臣 등 三功臣에게 國家에서 내리는 大賞이 있었음은 周知의 사실이다. 이때에 功臣錄券이 내려진 사람은 臣下 80餘人, 中臣 24人, 宗 20餘人 도합 百餘人¹⁾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이 과연 어떠한 人物이었으며 무슨 功으로 어떤 特典을 받았는지는 자상히 밝혀져 있지 않다. 그러던중 최근에 功臣都監에서 內侍 金良輔에게 賜給된 功臣錄券²⁾이 姜泰泳씨 宅에서 발견되었다. 이것은 錄券의 輪廓뿐만 아니라 金良輔가 內侍의 身分이어서 그 內侍級의 參與者와 그에 대한 禮遇相을 알 수 있게 하는 자료로 흥

* 中央大 客員教授

1) 宣祖實錄 卷175 張19 宣祖37年 甲辰6月 甲辰條

2) 서울특별시 鍾路區, 嘉會洞 1-11. 姜泰泳藏, [金良輔] 扈聖功臣錄 參照.

미롭다.

I. 金良輔에게 下賜된 扈聖功臣錄券

이 錄券은 內侍라는 賜給者의 성격의 탓인지 後孫에 의해 保存되지 않고 他人에 의해 傳存되었다. 그 入手經緯는 확실치 않으나 錄券은 세로 36.8cm의 淡黃色 繪絹地에 墨書된 것으로 襟接된채로 발견되었다. 始面은 '教'字가 약 半쯤 잘라져 있어 餘白이 얼마만큼이었는지 未詳하다. 極行으로 '教'字가 한 行을 차지했고, 둘째行에는 平行으로 시작, 嘉義大夫□□□□贈□勤貞亮扈□/功臣資憲大夫□□君金良輔書³⁾라고 記錄되어있다. 第4行째는 다시 極行으로 이어 '王若曰'로 起頭에 論功이 記述되어 있다. 次行은 平行으로 되어 있고, 結辭는 '故茲教示, 想宜知悉'의 套式을 지키고 있다. 다음에 平行으로 시작 低一字로 功臣의 名單이 縱行으로 2人씩 表示되어 있는 바, 一等은 2人, 二等은 31人, 三等은 53人이 列舉되어 있다. 3行을 隔하여 4行째에 다시금 2行(위 둘째字부터)으로 發給年月日이 기록되어 있으며, 年號인 '萬曆'의 '曆'字의 半쯤부터 '三十二年十月'의 '月'字까지 세로 10.1cm, 가로 9.9cm의 「施命/之寶」印이 찍혀 있다. 發給日字 다음에는 약 10.5cm의 餘白이 있다. 이 繪絹은 襟接되어 原狀이 대부분 유지되고 있으나 삭아서 글자가 있었던 흔적만 남아 있는 部分이 있으며, 특히 第10行은 腐蝕이 심한 편이다.⁴⁾

II. 錄券의 刊缺과 그 復元

宣祖가 金良輔에게 賜給한 이 功臣錄券의 全文⁵⁾을 轉載하면 다음과 같다.

3) 4) 5) 同上

〔妻泰泳藏 金良輔 恩聖功臣錄券〕

教

嘉義大夫行□□□，尚弧贈□動貞亮冠□。
功臣資憲大夫陟州君 金良輔書

王若曰：臨危效節，既盡服勤之忠，有功當酬。寧惜

懸賞之典。茲由公議，匪出私恩，惟爾閔尹之賢，

寺人之傑，朝廷之上夫，豈于政乎哉。洒掃之餘

□，其傳命而已。頃緣猥冗之侵竊，終致夏父之

去邪。事出蒼黃，人多顛沛失據，心堅，忠亮，爾能

奔走來追。恩賜之□，可嘉錄勳之典。□□□□

動爲恩聖□□□□、□□□階爵、□□□□□□

一階，無子，則甥姪女增加階，嫡長世襲，不失其錄。有

及永世。仍賜奴婢七口，田六十結，銀子五兩，表裏一段

內廐馬一匹，至可領也。於戲□，者已矣，雖未共帶，

礪之盟，書用識哉。庶幾追褒嘉之意。故茲教示，

想宜知悉。

〔已亡 高麗 李 恩聖 功臣錄券〕

一等

李〔恒〕，福

鄭 崑 壽

二等

〔羽〕。

瑀

李元翼

尹斗壽

吳致雲

沈友勝

李好閔

金良輔

尹根壽

柳成龍

朴忠教

金應南

李山甫

金應昌

柳應根

李忠元

朴春成

洪進

李澄

金秀源

柳永慶

李幼澄

辛大容

朴東亮

沈幼澄

趙龜壽

朴崇元

鄭姬

梁子儉

李光庭

崔興源

崔潤榮

沈忠謙

尹自新

鄭大榮

韓淵

尹自新

朴大榮

景溫

景儉

柳生

申碩

安呢

洪宗智

具成

李希齡

吳全

三等

鄭琢

李憲國

李希齡

柳希霖

李有中

李希齡

任發英

奇孝福

李希齡

崔應淑

崔實

李希齡

呂定邦

宋康

李希齡

高暖

李應順

李希齡

壽崑

姜應綢

李希齡

金起文

崔彥俊

李希齡

閔希壽

許俊

李希齡

李〔延〕

金應壽

李希齡

(施命之賓)

萬曆三十二年十月 日

一 〔已亡 高麗 李 恩聖 功臣錄券〕

이상과 같이 狀態가 좋지 못한 部分은 모두 字當 □로 表示했으며 字나 句나 節이 분명치 못한 것을 우선 ①②③④로 작은 符號로 표시하고 校勘을 試圖해 보았다.

① 은 文脈으로 보아 어느 官署名일 것인 바, 「明宗實錄」⁶⁾ 「宣祖實錄」⁷⁾에 金良輔의 職責이 內侍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內侍府’가 確實하고,

② 는 扈聖功臣의 ‘聖’字일 것이다. 더우기 「宣祖實錄」의 扈聖功臣⁸⁾에 金良輔의 이름이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③ 은 字跡의 右傍에 반쪽의 ‘隹’字가 보이고 있다. 前後 文意를 따라 解釋해 보면 “宦官의 뛰어난 人物로서 政治에는 無關하고, 清掃하는 일과 오직 傳令의 일에만 충실하였을 뿐이다.”라고 할 수 있으므로 ‘惟’字가 틀림없을 것이다.

④ 는 一部分이 腐蝕되었으나 다행히 右傍에 ‘力’이 남아 있다. 文意로 보면 “마치 獵狃이 鎬京을 侵入하여 虜父가 郿(逐)을 떠났을 때와 같이 모든 일에 唐慌해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彷徨했으나, 굳은 心志와 忠誠心이 밝아 그대는 능히 급히 달려왔다. 御駕를 들본 功은 훌륭하고”로 해석해서 左傍의 ‘工’과 짝지어 보면 ‘功’이 될 것이다.

⑤⑥ 은 前後文脈으로 보아 “功勳”을 記錄하는 法에 따라 이 錄勳을 扈聖功臣 三等으로 定하니”가 아닌가 한다. 그것은 「宣祖實錄」 扈聖功臣敎書에 金良輔가 三等⁹⁾속에 들어 있는 것으로도 立證된다. 이와 같이 본다면 ⑤는 “宜舉, 乃”일 것이고, ⑥은 “功臣三等”일 것이다.

⑦ 역시 扈聖功臣敎書의 三等에게 주는 錄勳에 의거해 보면 “圖形垂後, 超一階爵, 其父母妻子亦超一階”¹⁰⁾의 字數와 金良輔의 錄券 ⑦ 字數

6) 明宗實錄 卷33 張17 明宗21年 丙寅8月 辛酉條

7) 宣祖實錄 卷26 張6 宣祖25年 壬辰5月 乙丑條. 宣祖實錄 卷23 宣祖 22年10月 辛卯條

8)~15) 宣祖實錄 卷180 張31 宣祖37年 甲辰10月 乙亥條

가 同一數는 아니나 ‘圖形垂後’ 녀자가 金良輔에게 該當되는 것이 아니라 보면 毀傷된 文句는 “벼슬 한계급을 특진시키고, 父母妻子까지도 한 階級을 특진시킨다”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⑦은 「宣祖實錄」扈聖功臣教書 중의 “超一階爵, 其父母妻子亦超一階”일 것이다.

⑧ 에 대하여는 「宣祖實錄」扈聖功臣教書에도 該當內容이 없지만, 文意로 보아 金良輔가 이 功臣錄券을 받을 때 이미 死亡했으므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이미 죽은자여서 비록 功臣의 結義를 함께 하지 못하지만 글로 기록하여 길이 전하여 포상의 뜻으로 追贈하고자 한다”로 보면 前後文章이 연결된다. 따라서 이는 “於戲死者已矣”의 ‘死’字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⑨ 는 扈聖功臣教書¹¹⁾에 一等功臣으로 李恒福이 있으니 ‘恒’字일 것이고

⑩ 은 二等功臣에 信城君珝¹²⁾가 있으므로 이 글자는 定遠君 瑆처럼 ‘珝’字일 것이다.

⑪은 「宣祖實錄」(卷180 張 31. 宣祖37年 甲辰十月乙亥條)에 ‘鄭熙藩’으로 되어 있으나 實錄冊 21·22·24·25에 보이는 人物은 모두 ‘鄭姬藩’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는 扈聖功臣教書의 例示가 잘못된 것으로 ‘鄭熙藩’은 ‘鄭姬藩’의 誤이다.

⑫는 ‘海豐君’耆¹³⁾이고,

⑬은 ‘順義君’景溫¹⁴⁾이다.

⑭ 이 錄券에는 분명히 ‘李有口’로 되어 있으나, 「宣祖實錄」扈聖功臣教書에는 ‘李有中’¹⁵⁾으로 되어 있으며, 「宣祖實錄」卷175. 宣祖37年 甲辰6月甲辰條에도 ‘李有中’¹⁶⁾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金良輔의 錄券중 ‘口’字는 ‘中’의 誤일 것이다.

⑮는 「宣祖實錄」卷 175. 冊24, 張 19에는 ‘吳定邦’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宣祖 38年 8月 己酉에 慶尙右兵使가 된 吳定邦이 아니고, 「宣祖實

16)~18) 宣祖實錄 卷175 張20 宣祖37年 甲辰6月 甲辰條

錄」冊 25. 張 9. 宣祖40年丁未8月條에 나타난 內禁衛將 ‘呂定邦’이다. 따라서 ‘吳定邦’은 ‘呂定邦’의 誤이다.

⑯은 敎書를 쓴 繪絹이 10餘오리가 빠져서 글자의 中間이 없어진 部分이다. 兩傍의 部分劃으로서는 무슨 글자인지를 알 수 없으나 「宣祖實錄」에는 ‘李延祿’¹⁷⁾으로 되어있다. 그 記錄과 實錄에 나타난 劃을 비교해 보면 서로 一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⑰은 扈聖功臣敎書(宣祖實錄, 卷180. 宣祖37年甲辰10月乙亥條)에 ‘林佑’로 되어 있으나 이는 內侍 ‘林祐’의 誤이며,

⑱ 또한 扈聖功臣敎書(宣祖實錄, 卷175. 宣祖37年甲辰6月甲辰條)에 ‘金禮楨’으로 되어 있으나, 內侍‘金禮禎’의 誤일 것이다.

⑲는 發給日로서 敎書에는 記錄이 없으나 「宣祖實錄」에 「宣祖37年10月30日에 頒敎·賜宴했다¹⁸⁾」고 되어 있으므로 30日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 校勘한 바를 綜合하여 復元해 본바, 姜泰泳藏金良輔의 扈聖功臣錄券은 다음과 같다.

이를 國譯해 보면 다음과 같다.

〔姜泰泳藏 金良輔 扈聖功臣錄券의 復元〕

教

嘉義大夫行內待府尙弧贈忠勤貞亮扈聖

功臣資憲大夫陟州君 金良輔書。

王若曰臨危效節、旣盡服勤之忠、有功當酬。寧惜

懋賞之典。茲由公議、匪出私思、惟爾聞尹之賢

寺人之傑、朝廷之上夫、豈于政乎哉。洒掃之餘

惟其傳令而已。頃緣獯豸之侵鎬、終致亶父之

去郤、事出蒼黃、人多顛沛失措、心堅、忠亮、爾能、

奔走來追、扈駕之功可嘉、錄勳之典宜舉、乃錄

勳爲扈聖功臣三等、超一階爵、其父母妻子亦超

一階、無子則甥姪女增加階、嫡長世襲、不失其錄、宥

及永世。仍賜奴婢七口、田六十結、銀子五兩、裘裘一

段、內厩馬一匹至可領也、於戲、死者已矣、雖未共帶

礪之盟、書用識哉。庶幾追褒嘉之意。故茲教示、

想宜知悉。

(원문에는 구부절이 없음)

이하 공신명단 생략 姜泰泳藏 金良輔 扈聖功臣錄 참조

萬曆三十二年 十月 日

(施命之寶)

嘉義大夫行內侍府尙弧贈忠勤貞亮扈聖功臣資憲大夫 陟州君 金良輔에게 내리는 敎書

위태로운 일에 닥치게 되자 절개를 지켜서 忠誠을 다 하였다. 공훈이 있으면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 어찌 賞을 내리지 않겠는가. 이는 公議에서 나왔고 사사로운 은혜가 아니다. 그대는 뛰어난 宦官으로서 政治에는 무관하고 청소하는 일과 傳令의 일만 했을 뿐이다. 마침 獵獠이 鎬京을 침입하여 虜父가 鄒을 떠났을 때와 같이 모든 일이 당황스러워 많은 사람이 방황하고 어찌할바를 몰라 했으나 心志가 굳고 忠誠心이 두터운 그대는 급히 달려왔다. 御駕를 돌본 功이 가상하다. 공훈을 기록하는 법에 따라 扈聖功臣三等으로 勳錄한다. 벼슬 한 계급을 특진하고, 부모처자에게도 한 계급을 특진하여 자식이 없을 경우는 생질과 사위의 계급을 높혀주고, 장자가 세습하여 계속 그 祿을 받아 후세에까지 미치게 한다. 또한 노비 7명(口) 밭 60결, 은전 5량, 옷감 한 벌, 궁내말 한 필을 내린다. 아! 죽은자여서 비록 공신의 結義를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글로 기록하여 길이 전하여 포상의 뜻을 追贈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에 敎示를 내리니 잘 살펴 시행할 일.

* 동시에 받은 功臣名單은 省略함(譯者)

萬曆32(1604)年 10月 日

施命 / 之寶

Ⅲ. 錄券의 分析

1. 金良輔의 身分과 地位

金良輔는 倭軍이 首都 漢城을 占領할 무렵으로부터 義州에 이르기까지 始終御駕를 따라다니 功으로 宣祖 37(1604)年 10月 乙亥日에 功臣으로 올랐던 86人중의 한 사람이다. 金良輔와 함께 功臣으로 指名되어 宣祖로부터 功臣錄券(敎書)과 錫物을 받은 人物 및 그 等級¹⁹⁾은 다음과 같다.

19) 宣祖實錄 卷180 張 宣祖37年 甲辰10月 丙子條

扈聖功臣은 一等 2人, 2等 31人, 三等 53人 도합 86人이었다. 金良輔가 속한 三等功臣 가운데 內侍 24人, 醫官 2人, 理馬 6人, 內需別座 1人, 司謁 1人 등 34人은 그 職級이 밝혀져 있으나 나머지는 未詳이다. 그 나머지 功臣들의 職급을 일일이 밝혀 보는 일은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닐 것이다. 等級別로 功臣稱號를 살펴보면 一等功臣에 ‘忠勤貞亮竭誠效節協策扈聖功臣’의 號가, 二等功臣에게는 한 等級 낮게 ‘竭誠’을 덜고 ‘忠勤貞亮效節協策扈聖功臣’의 號가, 각각 주어졌으며, 金良輔는 그중 三等功臣으로서 ‘忠勤貞亮扈聖功臣’의 號가 주어졌다.

그가 이와같은 號를 받기 전에는 어떠한 位置에 있었으며 功臣錄을 받게 된 功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 그는 身分이 內官이어서 그런지 그의 文集도 없거니와 傳記類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 다만 「宣祖實錄」에 몇 토막의 記事가 보일 뿐이다. 그는 年少할 때에 대단히 狂悖한 性格을 지녔다. 그래서인지 그는 內侍班에 入參하여 근무중 明宗 21(1566)年 8月 辛酉日, 즉 陵을 옮기고 齋戒를 올리는 날에 한 老宦이 膳案을 올리려고 御室에 들어가려 할 때에 무슨 이유인지는 기록이 없어 확실치 않으나 마룻가에서 그 老宦을 毆打하여 높은 階段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여 宮內의 一大事件을 惹起시켰던 장본인이었다.²⁰⁾

宣祖22(1588)年 10月 辛卯日에는 “宣傳官 李用濬과 더불어 鄭汝立事件을 搜討하기 위해 全州에 이르렀다. 鄭汝立이 그의 아들 玉男과 同儻과 더불어 鎭安竹島에 숨어 있다가 軍官에 包圍되자 (기밀의 漏泄을 염려하여) 同黨邊湊를 죽이고 汝立自身도 自決하였다. 이에 하는 수 없이 그의 아들 玉男만을 체포하여 왔다.”²¹⁾고 한다. 內侍의 身分으로 이러한 일일까지 關與했다는 것은 職務以外의 일이었을 것이지만 아마도 宣祖의 信任을 펴 얻었던 탓에서일 것이다.

또한 宣祖25(1591)年에는 內官²²⁾ 金起文·吳胤亨과 더불어 隨駕의 功

20) 明宗實錄 卷23 張17 明宗21年 丙寅 8月 辛酉條

21) 宣祖實錄 卷23 宣祖22年 10月 辛卯條

22) 宣祖實錄 卷26 張6 宣祖25年 壬辰5月 乙丑條

으로 加資된 일²³⁾도 있었다. 원래 加資는 通政大夫以上の 品階에 한해 行해지는 것이다.

2. 金良輔의 壬辰亂時의 功勳

그러나 金良輔는 宣祖가 내린 敎書에서도 나타나거니와, “뛰어난 人物로서 평소에는 政治에 관심이 없었고 淸掃하는 일과 傳令의 일만에 專念하여 致賀를 받았으며, 壬亂時에는 獫狁이 鎭京을 침입하여 虀父가 扉를 떠났을 때와 같이 모든 일이 당황스러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彷徨했으나, 그만은 굳은 心志와 忠誠心이 밝아 급히 달려와서 御駕를 들본데 그 功이 컸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壬亂時에 漢城으로부터 義州에 이르기까지 始終 御駕를 護衛한 데 功이 커서 그 錄勳으로 扈誠功臣 三等을 받았던 것²⁴⁾이다. 그가 「忠勤貞亮扈聖功臣」의 號를 받은 것은 다른 內侍, 醫官, 理馬, 內需司別座, 司謁들과 差別이 없었다. 어떤 面에서는 남보다 特惠를 받은 印象도 주고 있다. 그것은 當時에 嶺南에서 義兵을 일으킨 鄭仁弘, 金沔, 郭再祐나 湖南, 湖西에서 死節한 金千鎰, 高敬命, 趙憲 등도 功臣에 들어가지 못했으며²⁵⁾, 또한 史官이 指摘했듯이 辛卯(1591)年에 燕京에 가서 廷臣들의 意思를 잘 전달하여 마침내 明나라 皇帝가 壬亂의 情狀을 알게한 功이 큰 金應南이나, 中國에 있으면서 國家가 侵略을 당했다는 것을 듣고 7日間이나 斷食하면서 請兵하여 明軍을 오게한 功勞가 있는 申點이나, 請兵을 하고 請糧을 한 鄭崑壽나, 對明外交文書를 擔當했던 李好閔, 그리고 血戰에 參與해서 큰 功을 세운 李舜臣, 元均, 權慄정도라면 功臣錄에 오를만 하다²⁶⁾고 한 중에 金良輔정도가 功勳이 크게 評價되어 功臣으로 選定되었기 때문이다.

3. 金良輔에 대한 差別待遇

그러나 錫物에는 金良輔에게 差別이 若干있었던 것 같다. 대체로 扈

23) 中宗實錄 卷26 中宗14年 己卯8月 甲戌條

24) 宣祖實錄 卷175 張19 宣祖37年 甲辰6月 甲辰條

25) 宣祖實錄 卷180 張32 宣祖37年 甲辰10月 乙亥條

26) 宣祖實錄 卷175 張20 宣祖7年 甲辰6月 甲辰條 史臣評參照

聖功臣 三等에게는 本人의 肖像을 그려서 後人에게 거울로 삼게하고 一階級을 進級시키며, 그의 父母妻子에게도 1階級 進級시키고, 아들이 없으면 甥姪女婿에 이르기까지도 階級을 加해 준다. 그뿐만아니라 말아들이 世襲해 그 祿을 받아 後世에까지 미치게 하기위하여 使喚 4人 奴婢 7口, 丘史 2名, 田 60結, 銀 50兩, 內廐馬 1匹을 내려주는 것²⁷⁾이 常例이며 이것이 賞典에 적혀져 있다. 그러나 金良輔에게 준 錫物에는 本人의 肖像이 이미 죽었던 탓으로 없었고 丘史 2名을 주지 않았다. 다만 그대신 남보다 옷감(表裏) 한벌을 더 준것²⁸⁾이다.

IV. 宣武·清難功臣錄券과의 比較

金良輔에게 내려진 三等扈聖功臣錄은 扈聖功臣錄중에서도 下級에 屬한다. 그것은 內侍라는 職級에 緣由된 것이라기 보다 功臣으로서의 功이 다른 功臣에 비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扈聖功臣속에서도 一等功臣에게는 錫號가 「忠勤貞亮竭誠效節協力扈聖功臣」으로 높이 주어졌고 肖像을 남겨 後人에 거울삼게 하였으며 階級도 3階爵을 特進시키고, 그의 父母妻子에게도 3階級을 特進시킨 데 비하면 3分の 1밖에 되지 않는다. 아들이 없을 경우에도 2階級을 特進시키고, 使喚도 10人, 奴婢도 13口, 丘史도 7名, 田도 150結, 銀도 10兩을 내리는 一等功臣에 비하면 懸隔한 差가 있다. 扈聖二等功臣도「忠勤貞亮扈聖功臣」의 錫號에 비해 ‘效節協策’이 없었으며 本人과 父母妻子에게 내려진 進級 또한 半에 不過하였다.²⁹⁾

宣武功臣에 비해서도 錫號의 性格이 다르다. 원래 宣武功臣은 倭軍을 征伐한 血戰의 功이 있어 一等에는 「效忠仗義迪毅協力宣武功臣」의 號가 내려지고, 同二等에게도 「効忠仗義協力宣武功臣」의 號가 내려지고 同三

27) 宣祖實錄 卷180 張31 宣祖37年 甲辰10月 乙亥條 扈聖功臣敎書參照

28) 姜泰泳藏 金良輔에게 준 「扈聖功臣錄」參照

29) 宣祖實錄 卷180 張31 宣祖37年 甲辰10月 乙亥 扈聖功臣敎書

등에게도 「效忠仗義宣武功臣」의 號가 내려졌을 뿐만 아니라 「封君」의 賜爵까지 있었는데³⁰⁾ 扈聖功臣에게는 이 賜爵이 없었으며, 따라서 金良輔의 扈聖功臣三等에도 이와같은 賜爵이 없었던 것이다. 또한 그 宣武功臣에게도 扈聖功臣과 等級이 똑같고 錫物의 按配도 同一하였으니 金良輔에게 내려진 錫物도 宣武功臣三等에 내려진 것과 大同小異하다.

淸難功臣과 比較해 보아도 一等에게 주는 號가 「奮忠出氣合謀迪毅淸難功臣」, 二等에게 주는 號가 「奮忠出氣迪毅淸難功臣」, 三等에게 주는 號가 「奮忠出氣淸難功臣」³¹⁾이었으니, 扈聖功臣의 錫號가 다를 뿐 錫物은 같다.

이와같이 본다면 倭軍과 血戰한 宣武功臣만은 「封君」의 爵이 더 내려진 것일뿐 扈聖功臣의 錫號, 錫物은 같다.

結 言(錄券의 資料的 價値)

以上을 종합해 보면 ① 金良輔의 功臣錄에는 三等功臣중 宋康, 高曦, 全龍, 吳連의 序列이 「宣祖實錄」記事와 一致되어 있지 않고, 「李有口」는 「李有中」의 誤字였다.

② 宣祖가 功臣의 裁可를 내리면서 吩咐한 말중에 “忠을 본받아 힘을 다하는 데는 大小의 區別이 없고, 功을 賞주고 수고에 보답하는 데는 貴賤이 없으며, 私情없이 前例에 따라 公正하고 公平히 하겠다.”³²⁾ 했으나, 金良輔의 「功臣錄」과 實錄에 記載된 「扈誠功臣錄教書」와 對比해 본 바, 實錄에 있는 “肖像”을 그려 後世에 垂範이 되도록 하겠다.”(圓形垂後)는 肖像이 이미 죽었던 탓으로 金良輔에게는 없었고, 「丘史二名」을 내린다 하였으나, 그의 功臣錄에는 없었던 것이다. 또하나의 實錄에는 없으나 金良輔의 功臣錄에는 옷감 한벌(表裏一段)이 들어 있다.

30) 宣祖實錄 卷180 張30 宣祖37年 甲辰10月 乙亥 宣武功臣條

31) 宣祖實錄 卷180 張29 宣祖37年 甲辰10月 乙亥 淸難功臣條

32) 宣祖實錄 卷86 張11 宣祖38年 乙巳4月 庚申條

이를 보면 各人の 功績에 따라 錫物에 다소의 差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이 功臣錄券에는 發給日이 表示되어 있지 않았으나, 「宣祖實錄」에 宣祖37年 10月 30日에 頒敎事實을 기록하고 있었으므로 空白 두 字를 ‘三十’으로 補充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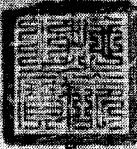
④ 扈聖 宣武兩功臣에 대하여는 同一事件이어서 功臣에 대한 禮遇가 같을 것이지만, 忠淸道에서 叛亂을 일으킨 李夢鶴亂을 討平한 淸難功臣 三等에 대한 淸難功臣敎書의 錫物과 扈聖功臣三等에게 내려진 敎書의 錫物을 比較한 바 同一하였다. 이는 아마도 功臣都監에서 定한 規程에 準한 탓으로 여겨진다.

끝으로 當時의 情況을 燕京에 가서 帝(神宗)에게 알린 金應南, 7日間이나 斷食하며 明의 援軍을 請해 發軍케 한 申點, 請糧에 功이 큰 鄭崑壽, 外交文書를 잘 처리해서 中國과의 紐帶를 強化시킨 李好閔, 血戰에 功이 있는 李舜臣, 元均, 權慄 정도가 功臣이 되는 것은 몇몇하나 其他의 人物이 많이 選定되었고, 義兵을 일으켰던 鄭仁弘, 金沔, 郭再祐의 義舉와 金千鎰, 高敬命, 趙憲의 死節이 功臣에 들어있지 않아 그 公平性이 의심된다. 그러나 이 功臣錄을 통하여 壬辰倭亂의 社會相은 물론 勢道相도 알 수 있었으며 壬辰倭亂의 事後處理相을 짐작케함은 물론 實錄의 人名에 대한 誤字 訂正도 可能했거니와 그 內侍의 役割과 그 處遇에 대해서도 알 수 있으므로 이 功臣錄의 資料的 價値가 자못 높다 하겠다.

內侍 金良輔扈聖功臣教書

任發英 崔應水 呂廷珩 高 壽 金起文 閔希壽 吳致雲 金良輔 朴忠敏 金應 朴春成 辛大 趙應壽 果于徐

奇孝福 崔 宋庚 李應 姜 崔孝俊 許 金應 安身鳳 林 金應 中應 金豐 李公 白雁苑



崔潤榮 謝大吉 朴夢周 柳肇生 廣宗智 洪澤 李春國 李希齡

金俊榮 金繼 李士恭 楊守民 崔世俊 李龍 吳連

A Study on HOSEONGKONGSINLOK awarded to Kim Yang-bo, a eunuch

Shim Woo-choon*

ABSTRACT

This articles aims to analyze HOSEONGKONGSINLOK awarded to Kim Yang-bo, a eunuch, having major roles to take refuge the king Seon-jo when the Japanese invader rushed into Seoul in the time of Hideyoshi's Invasion of Korea in 1592.

At that time, all meritorious retainer was to be rewarded equally by a given rules of the stipends and the gifts. But for the eunuch, differently from others, the portrait was not made to be handed down as a model. Instead one more clothes was given. This suggests that there were some differentiation of the class and the job in the evaluation of the merits.

From this we can see that there might be some problems in the selection of the meritorious retainer, resulting in unfair awarding, and needing to be reevaluation from the historian.

Even though somewhat worn out, this material has very important value as a historical source in terms of following viewpoint:

- 1) it contains all the name of the meritorious retainers at that time.
- 2) it suggests the social situation and affairs at that time more precisely.
- 3) it reveals the facts even some facts in the authentic records can be corrected.

* Visitting professor. Choonang University Seoul, Korea